

그들이 결코 옮겨 적지 않은 부분

그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말했다. 이 반석 위에 너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성경에 실린 것은 거기까지다. 나머지 대화는 결코 옮겨 적히지 않았다. 그것은 대외비로 남았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환영이다. 배제는 없다. 계급주의도 없다. 다만 우리 협력자들, 정치인들 비위를 맞추느라 직업소개소에서 채용해야 했던 사람들, 면도를 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도회를 만들어 달라. 눈에 띄지 않는 수도회를. 그래야 우리 이미지가 상하지 않고, 말에 대한 깊이와 신뢰도 잃지 않는다.

이제 모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미친 자가 기독교 영성의 최고 영역까지 건드리고 있다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가. 미친 자다, 과대망상가다. 그런데 대체 저자는 누구인가?

답은 단순하고 진부해 보인다. 그저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사람.

Ferdinando